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6월1일 우크라이나 고아원 봉헌예배 드려”

안녕하십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일 캔디 데이트 17명과 팀멤버 97명 약 200여 명이 넘게 모여서 프레스디아스를 센터 건물에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바로 고아원 봉헌식 예배가 있었습니다. 봉헌식 예배에 한국 대사와 영사님들,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 현지인 사역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하를 해 주는 귀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신 손님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들로 또 풍성한 교제를 하면서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고아원이 아직 완전히 완공은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마무리도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 전에 마무리하고 가을부터 원생들을 모집합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은혜 선교센터에서 운영 하는 신학교 졸업하고 훈련받은 졸업생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헌신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 교회에서 추천하는 원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내주시길 믿습니다. 함께 소식을 공유하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건축과 아이들 양육에 필요한 모든 가구와 물품들도 채워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일 년 함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건물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만 온전히 올려 드립니다.

기도제목

1. 김교역 주순 선교사 성령 충만으로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지혜롭게 맡겨진 사역들 부끄럽지 않게 감당 할 수 있도록,
2. 우크라이나에 센터를 통하여 세워진 지역 교회 곳곳마다 성령의 불길로 부흥의 역사하심이 넘치고 사역자들 무릎을 드리며 성령 충만하도록,
3. 운영하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를 통하여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신입생 모집과 교직원 모집, 학교 지붕과 복도 바닥 등 대 수리 공사를 위해서,
4. 신학교 가을학기 신입생들과 목회자들 컨퍼런스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 김교역, 주순 선교사 드림



금주 기도제목

아르헨티나 유성두/김지에 선교사

1. 하나님 우선으로 결정하고 생각하도록
2.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실수와 잘못을 계속 줄여 나가도록
3. 아르헨티나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고 균형형을 이루도록
4.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있어서 주님의 뜻이 진행되도록
5. 2018년 아르헨티나 선교센터의 사역들과 건물 보수가 잘 진행되도록
6. 6월 29-7월 1일, 청소년afa가 잘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7. 언어적 능력에 향상이 있기를(스페인어)
8. 신학교 건물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않도록
9. 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 경제가 보호해 주시도록
10. 앞으로 해야 할 유성두 선교사의 교회행정, 목회학, 설교학 강의와 감지에 선교사의 교회 교육, 성경과노라마 강의들을 준비 잘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11. 다연이 호연이가 새로운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잘 적응하도록
12. 다연이가 밤마다 쉬를 하지 않고 악몽을 꾸지 않고 호연이는 변비에 안 걸리도록
13. 감지에 선교사의 허리 통증이 좋아지도록
14. 치아가 건강해지도록

미국 양00,00 선교사

1. 터키 신학교 4기생(10월 29일 입학)을 모집중입니다. 좋은 학생들을 보내 주시길 위해
2. 확실한 복음을 가르쳐 예수만이 구원자 이심을 확신하도록
3. GMI 영성(Basket Operation)을 중심으로 배워 교회 개척을 목표로 배우도록 위해
4. 터키에 와 있는 난민 지도자들을 가르쳐 터키와 아랍 22개국에 복음을 전하도록
5. 통역이 한분 더 필요한데 좋은 통역을 보내 주시도록
6. 터키에 있는 GMI 선교사 여섯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터키 복음화를 이루어 가도록
7. 6월 18일 담낭 절제 수술을 받는 양 옥경 선교사 주님이 수술을 잘 해 주시도록

영국 김재아, 조성문 선교사

1. 음악 선교비전의 열매로써 첫번째 The Music Messengers 캠프를 열게 되었습니다(6월11일-17일).이 기간동안 전문음악인들이 함께 모여 1904년 웨일즈 대부흥의 전원이인 Moriah Chapel, 1866년 평양에 최초 개신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Hanover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Llanelli"마을에 있는 Ty Gwyn 교회와 Stradey Castle에서 연주와 예배가 있게됩니다. 노래와 시의 고장 웨일즈에 얼어붙은 마음들에 부흥의 노래가 다시 살아나기를 함께 기도해주세요.

몰도바 정석영 선교사

1.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바라기가 되기를
2.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언어(루마니아어)가 발전할 수 있기를. 9월 신학기에 부족한 언어를 위해 다시 언어코스(1년)를 등록하려고 합니다.(단시간에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주님이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주시고, 좋은 교사와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주님이 준비하신 예비된 배우자 속히 만날 수 있도록.
4. 함께 사역을 준비하고 동역할 동역자 보내주시기를.
5. 자동차가 좋은 사역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중고 차량을 사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 수리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 나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6. 현지 운전면허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필기시험에 다시 도전합니다!)

파라과이 김돈수, 미정 선교사

1. 김돈수 선교사가 건강을 잘 회복하도록
2. 감당하고 있는 양로원 사역과 아동 개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3. 7월 12일-14일 까지 있을 AFA 8기가 잘 준비되도록, 캔디와 팀멤버가 잘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TD가 되도록(멜디 70명, 팀멤버 60명)
4. 아내 김미정 선교사의 건강과 장남 김용욱 대학 입시 준비 중인데 좋은 결과 있도록, 차남 김용준이 사춘기를 잘 보내도록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Grace Korean Church Mission News

1-714-446-6200~6, 1-714-446-6208(직통) 1645 W. Valencia Dr.Fullerton, CA 92833 gkcgmisa@gmail.com 한국 GMI본부 82-2-472-7060
www.gmimission.org(Korean) Kimkwangshin.com

아시아에서 온 소식 I - 태국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

Jun 13, 2018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와 속히 이루리라”

“태국 교단등록 완료, 탕파농군 교회 개척예배”

주님의 평안과 감사를 후원자분들과 중보동역자들에게 전합니다! 가끔 자문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선교사가 될 것인가? 대답은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내신 곳이며, 주님이 항상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열매가 아직은 겨자씨 한 알 만큼 작지만, 주님의 때에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마13:31-32)

나깨 교회(11/22/2015 개척)

할렐루야! 태국 교단등록이 되었습니다. 태국 동북부(태국의 1/3, 인구 약 2,300만, 한반도의 크기)에서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교단(태국 순복음)에 최초로 등록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4월에 8명이 세례(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과 러브 스토리,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깨교회 어린이 캠프 1기(4/30-5/2)를 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비록 10명에 불과하지만, 아이들 대부분이 성도들의 자녀이고, 주일학교 교사들 역시 나깨교회에서 자라난 성도들입니다.

칸르양 면(面)에 현재 세례교인 9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이상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캄포 예배처를 칸르양 가정교회로 합병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사랑의 교회 의료선교팀이 섬기고 간 후, 피만 면(面)에 세례교인 6명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처가 생겨서 조금씩 꾸며가고 있습니다.

쑤뽀이 마을에 세례교인 1명(인도자)을 포함해 5명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들이 지역의 영향력 있는 교회들로 자리나며, 또한 각 면(面)단위마다 새로운 가정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탕파농군 교회개척 (4/15/2018 첫 예배)

아직 교회가 없는 탕파농군(郡)에 예배처를 임대해서 지난달 4월 15일 첫 예배를 돌이서 드렸습니다. 이곳은 부처의 기슭 뼈가 안치되어 있다고 하여 태국에서 불교의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했는데, 지난 2월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이곳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성도가 아무도 없지만, 나콘파놈 교회연합회 연합기도회를 탕파농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영적 여리고 성과 같은 이곳에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모두들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해주시신 학생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저와 아내가 성령 충만함과 건강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소서.
2.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나깨교회, 칸르양 가정교회, 피만 가정교회, 쑤뽀이 가정교회, 하나님 축복교회, 탕파농 교회)을 성장, 성숙하게 하소서.
3. 인카운터 사역(11월 말)을 통해 나콘파놈도와 인근의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4. 의료선교(8월 사랑의교회 의료선교팀)를 통해 교회를 세우소서.
5. 나깨군 나깨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한 땅을 주옵소서.
6. 나콘파놈 선교센터 본관건축 재정이 마련되도록!
7. 위 마을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태국에서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 드림



2018년 6월 17일 선교사 현황(금일기준)
57개국 316명 선교사 (자체 파송 77%)

GKC 비전을 위한 기도제목

1. 이방인의 총만 수와 이스라엘의 구원(롬11:25 ~28)을 위한 총체적 선교를 위해
2. 온전한 성결, 전적인 헌신으로 순교적 선교 감당
3. 미전도 종족 지역 7,000개 센터 교회 세움 위해
4. 제자화, 교회개척, 토착화를 위해
5. 선교사 훈련원 & 신학교(17)를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K국, 중국(3), 대만, 인도, 1국, 캄보디아, T국, 케냐, 미국, 페루,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쿠바

김광신 원로목사의 선교사역 위해

1. 건강 회복과 새 힘 주심
2. 성령충만, 권능충만, 세계선교 마무리 사명 감당
3. 6/26(화)~6/30(토) 프랑스 EGL #78

한기홍 담임목사의 선교사역 위해

1. 성령충만, 능력충만, 세계선교 마무리 사명 감당
2. 영육간의 강건, 이 시대 영적 리더로서 사명 감당
3. 교계와 선교계를 잘 섬기는 사명 감당

단기선교 현황 및 행사

7/15(주일)~7/18(수)	프레즈노 목측 VBS 팀멤버 모집 회비: 개인 \$350 / 가족 \$650 문의: 조규진 안수집사 562.922.0154
7/15(주일)~7/24(화)	북방선교 사할린TD(SKGL#2)팀멤버 모집 S/D: 한기홍 목사, Rector: 임명수 장로 회비: 항공료+\$500 문의: 김성용 장로(코디)714.702.6002
7/24(화)~7/27(금)	은혜동산 12기 팀멤버 모집 S/D: 한기홍 목사, Rector: 엄기석 장로 문의: 문기훈 목사 714.351.7212
7/26(목)~8/3(금)	페루 G.E. 단기선교 팀멤버 모집 S/D: 김상순 목사, Rector: 박스카이, 정준동 집사 회비: 항공료+\$500 문의: 문기훈 목사 714.351.7212
10/19(금)~10/27(토)	파라과이 의료선교 팀멤버 모집 회비: 항공료+\$500 문의: 김명수 장로 714.417.2001

선교사 입국 현황 (6월 17일 기준)

강형민/숙진 (키르키즈스탄) 714.272.6080
김명옥(보안지역)
김영선(보안지역) 714.461.8272
박원근/윤숙(케냐) 657.243.5910
서용복(보안지역) 714.272.5827
오하미디 (보안지역) 657.378.8095
유익경/정일 (보안지역) 714.804.6507
정문희(보안지역)

권역별 선교사 현황

선교사 현황	국가	선교사
구 소련	8	35
아시아	20	171
아프리카	6	26
중남미 / 포어권	13	40
유럽	8	21
북미주	2	23
합계	57	316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

“개척 14개월,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세월(시간과 조류)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는 말이 생 각날 정도로 시간은 무서운 가속도가 붙어 벌써 올해 중간 지점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혼자 너무 시간에 민감한지 도 모르겠습니다. 선교 사역도 세상의 사업과 같이 시간적인 투자 에 비례해서 효율성을 내야 한다고 배우고 동의한 때가 있었습 니다. 그래서인지 개척 1년이 이제 겨우 지난 시점에 저는 벌써 얼마 의 열매를 낳았나를 계산하며, 또한 너무 게으른지는 않았는지, 너 무 느린 건 아닌지를 점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면 참으로 과거의 습관과 생각의 패턴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경험이 해(害)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과 습관도 주님께서 제게 필요해서 허락해주신 선물로 감사 히 받고 조심만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득(得)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합니다. 답을질 하되 오직 주님께만 정진반기를 목표로, 주님 의 마음을 확인하며, 저희에게 맡겨 주신 영혼들에게 부족하고 작 지만, 저희의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주님께서 그 영혼들도 자라 게 하시고 목격하시게 하겠지요. 함께 위해 기도해주세요.

정식으로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1년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큰 일 년간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일해주시는 놀라웠습니 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하시어 “그 말로 하나 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삼상 3:19)”는 표현처럼 저희의 수 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셨 습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반대로 인해 혹은 저희와 성경 공부도 시작하기 전에 이단에 빠져서 나간 아이들을 제외하고 15-16명 의 학생들과 아내는 언제부터인가 거의 일대일로 똑같은 분문의 한글과 성경공부를 개인적으로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일주 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달려왔습니다. 특히 공산주 의 문화대혁명으로 종교심이 상실되고, 가족 중심의 문화로 움직 이며, 개방 후 자본주의에 노출되어 살아오면서 오직 돈과 성공에만 관심 있는 영혼에게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은 저희의 힘과 말의 능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 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 백합니다. 이런 고백 후에도 또다시 지금은 마치 “결과처럼 보이 는 과정”을 바라보며 실망이 따른 되지만, 저희를 먼저 찾아오시 고 만나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인내함으로 이 친구 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 이들의 영혼을 위해 해 산하는 고통으로 울려 합니다. 이들의 영혼들을 위해 함께 중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나그네가 나그네를 섬깁니다”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희 미주 LA 지부는 미국 내 한국 유학생 사역과 탈북민 사역을 감 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주 한국일보 유학생 통계 자료를 확인해보니 유학생의 숫자가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는데, 지 난해에 비해 7% 가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로운 영혼은 언제나 우리 가까운 곳에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 으로 다가가 사랑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손봉호 ISF 명예 이사장님께서 미국에 강사로 오셨습니다. 세계 각 나라 에 대학을 세워 현지 청년들을 교육하며 지도자로 세우는 파우아(PAU) ‘세계 교육 선교대회’가 풀러 신학교(Fuller Seminary; 낫 시간)와 나섬 영락교회(저녁 집회)에서 있었습니다. LA 지부에서는 손봉호 명예 이사장님과 여러 감사분들을 영접하는 부서 와 협력하여 전 세계에 세워진 한인 대학교 총장님들을 섬기며 대접하였습니다. 특별히 몽골 ISF 고엘리사 지부장님도 만나 몽 골 귀국 유학생 사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몽골 대학교 교수로 몽골 현지 학생은 물론 귀국 유학생들을 영적 지 도자로 세워나가는 지부장님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유학생 사역을 어떻게 지속해 나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계 기 도 되었습니다. 파우아 대회는 3박 4일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참가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특 별히 제가 속해 있는 은혜한인교회는 파우아 대회 총대회장으로 섬기며 다음 2세들과 선교사를 꿈꾸는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 과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듀얼멤버십으로 ISF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며 은혜한인교회 해외선교부 소속으로 탈북민사역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 별히 지난해 9월 포항지역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미국과 한국을 오 가며 사역하였는데 집이 무너지고, 이웃이 명을 달리하는 지진의 공포보다 투명인간처럼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 흘 로 내 물리는 암울한 상황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들의 공허한 영적 상태를 채울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 곧 유학생과 탈 북민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들로 세우고 싶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해 하는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유학생과 탈북민들을 섬기며 우리 역시 이 땅의 나그네임을 깨 단고 현재 주어진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견고히 세워나가도록 다짐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최미영 선교사 드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라마단 기간, 언어훈련에 집중”

반등을 떠나 새로운 도시 데콕으로 온 시간도 한 달이 넘어갑니다. 동역자님들의 중보 로 비자 여행과 정착 과정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온갖 생각과 복잡한 상 황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인도네시아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면서도 저만의 피할 길을 만들고자 애쓰는 저보다 늘 앞서 일하시는 주님. 뒤돌아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도 동역자님들의 기도 후원 가운데 든든해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살아 계신 하 나님의 일하심을 동역자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데콕으로 이사를 하는데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 반동-싱가포르-자카르타 여정을 결정하 기가 어려웠습니다. 짐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데콕에서 머물 곳을 구한 후 다시 반동으로 와서 가져가기로 하고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온갖 걱정을 했던 것이 무색하리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의 필요를 저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떠나기 직전 선교 2세대이신 선교사님 을 소개받았고 그분이 제가 알아보려고 했던 아파트에 사시고, 아이를 낳기 위해 반동 친 정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또 학기 시작보다 빨리 돌아가시기로 하셔서 제 짐을 가지고 이동해주셨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돌아와서 다시 반동으로 짐을 가지러 가는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아파트 구하는 것도 함께 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콕에 아는 사람 하 나 없는 저에게 이웃을 먼저 주시고, 살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GKDI 라는 현지 교 회도 예비해 두셔서 기도 응답 가운데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학생비자 및 외국인 거주증 발급 완료

싱가포르에서 학생 비자를 받는 것은 긴장감이 있었지만, 기도의 후원으로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돌로스 사역 이후 10년 만에 만난 싱가포르 친구들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 고 열심히 교회와 선교에 헌신하고 있음에 기분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비자 받는 것보 다 해외 거주증, 주민센터/경찰서/시청 신고 등 들어온 이후의 과정이 복잡해서 처음에는 대행사를 쓸까도 생각했지만 두 배나 비싼 요금을 생각하니 혼자 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하게도 작년 하반기부터 학교에 이민국 서비스가 생겨 세 번이나 가야 하는 이 민국 방문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과정은 두 번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복잡 했지만, 지금은 모든 과정을 마치고 시청 서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6월 25일 발급 예 정). 거주지와 비자 종류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과정이지만 한 단계가 일단 라 되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언어 공부

우이 대학의 외국인을 위한 어학 과정인 BIPA 과정은 1년 과정으로 총 3단계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한 달이 되었을 뿐인데 이미 지난주에는 1차 시험을 보았고 난이도 높은 문 제에 충격을 살짝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어 배우는 과정은 즐겁고 재미있어 활발 하게 수업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이 BIPA 과정의 장점은 체계적이고 여러 기자재 를 활용하여 전방위적으로 단어나 문법을 기억하고 연습할 수 있게 합니다. 완벽한 과정 이라는 것은 없기에 임락은 임락대로, 우이대학은 우이대학대로 주는 유익함을 취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감사한 것은 우이 대학의 캠퍼스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로 오면서 매연과 교통체증, 복잡함이 심해졌는데 학교로 들어오는 순간 우거진 나무의 푸르름을 보 면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강의실로 걸어가는 아침 시간이 저 에겐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 - 라마단

이슬람 금식 기간을 경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야기로만 들었던지라 어떤 영적 변화가 있을지 긴장되었습니다. 라마단이 시작하기 전 인도네시아 곳곳에 테러가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열심을 보며 저도 창밖을 바라보며 새벽마다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TV에서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모스크의 소리도 극 령하게 커졌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견고하고 강한 진을 어떻게 파해야 하는가 하는 답답함 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라마단이 시작하고 보니 도시에서 그렇까요? 제가 생각한 것의 금식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영적으로 그들의 신에게 더 울부짖을 거로 생 각했는데 오히려 온통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 지만, 일몰 후에 금식이 풀리기에 앞서 4시부터 식당은 북적입니다. 음식을 시켜 놓고 금식 이 풀리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음식 코 트 바닥을 사람들이 모두 점령했습니다. 곳곳마다 음식을 시키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식 당에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이 또한 라마단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식이 주는 무 게감이 없지 않습니다(그렇기에 저는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은 의미 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기간을 지나 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의 일정

앞으로 1년은 어학과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고도의 기억력과 집중력으로 언어의 진보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학공부 이후 어느 곳에서, 어떠한 비자로 사역을 해야 하는지 지혜 와 분별력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단계가 끝나는 시점에 서울은혜 교회에서 자카르타에서 사랑의 불꽃을 진행하는데 팀멤버로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 불꽃이 전해지고 퍼져 나가도록, 준비하시는 분과 참여하시는 분들을 영적 강권함과 예 비하심을 위해 기도도 동참해 주세요.

- 5/11 - 8/25 인도네시아 대학 어학과정 1단계
- 8/27 - 8/30 서울은혜교회 자카르타 사랑의 불꽃 팀멤버
- 9/14 - 12/15 인도네시아 대학 어학과정 2단계

기도제목

1. 인도네시아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2. 인도네시아 언어 공부할 때 고도의 기억력과 집중력으로 빠른 언어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3. 사랑의 불꽃 준비과정과 예비하신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해지 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4. 영과 육이 건강할 수 있도록
5. 어학 이후의 사역지, 동역자와의 만남, 비자 관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 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6. 기도, 재정후원자들이 사역지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 하심에 따라 세워 지고 채워지도록
7.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에서 기혜정 선교사 드림